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다음카카오,
국산 식재료 정보를
다음 백과사전 서비스로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주식회사 다음카카오(대표 최세훈·이석우, 이하 다음카카오)는 농식품부에서 발간한 국산 식재료 정보를 다음 검색, 카카오검색 등 다음카카오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국산 식재료정보(책자 3권 총667페이지)에 대한 전산화(DB) 작업을 지난 7월 30일에 완료하고, 다음 백과사전 및 검색 서비스를 통해 내용(콘텐츠) 노출을 시작하였으며, 각 식재료별 자료출처를 선택하면 'The외식*' 사이트로 이동하여 원문 전체를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The 외식'(www.atfis.or.kr) : 2015.6.5일 오픈한 한국외식산업정보들머리사이트(포털사이트)로 식재료정보외식산업통계외식기업해외진출정보 등 외식과 관련한 통합정보를 제공

그 동안 농식품부는 식품외식업계를 통한 국내 식재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체 식재료 산지 직거래박람회(페어)'('15년 8회 개최예정), 외식전문 식재료물(<http://food.eat.co.kr>)운영, 국제식자재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산 식재료 정보서를 매년 발간해 왔다.

이번에 제공되는 자료는 '대한민국 식재총람'('15), '숨겨진 맛 식재의 재발견'('14), '대한민국

8도 식재총서'('13)등에 수록된 내용으로 식재료 개별품목별 요리법주요생산지영양성분, 각 지자체별 식재료 생산정보 등 총 405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농식품부와 다음카카오의 협업을 통해 국산 식재료 정보검색 및 접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책자/파일을 통한 정보이용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은 국내 대표 들머리사이트(포털사이트)를 통해 국산 식재료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와 다음카카오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콘텐츠)을 발굴하고 전산화(DB)하는 등 협업의 범위를 넓혀갈 계획으로, 농식품부는 공공정보의 적극 개방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확대, 협업 및 소통을 통한 정부정책의 역량제고 등 정부 3.0의 패러다임을 실천해 나아갈 것이며, 민·관 협력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외식업관계자 및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AI)는 내 손 안에!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철새의 이동 상황 파악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5.8.18.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철새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철새 위치추적 관리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 출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주)한국환경생태연구소와 함께 2013년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및 철새의 관련성, 철새의 이동경로 및 서식지 파악 등을 위해 상용통신망(WCDMA)과 인공위성(PTT)을 이용한 위치추적장치를 철새에 부착해 왔다

* 13년 75마리, 14년 70마리 부착 완료, 15년 355마리 부착 예정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야생조류의 종류 및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철새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져 (주)레이플소프트와 함께 “위치추적기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위치추적기 통합관리 시스템은 정부 3.0 가치 실현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손 안에서 실시간으로 철새 이동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개발된 시스템은 위치추적기 부착 철새의 이동경로, 농가와 철새 간 거리, 과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지역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철새의 이동 지점, 시기 및 이동경로를 표시할 수 있고, 표시된 지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어 이동경로 비교 등 관련 연구가 가능해진다.

위치추적장치 및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로 철새의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위치추적장치 부착 사업이 진행 될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철새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문운경연구관은 “위치추적기 부착 철새가 가금농가에 일정 반경 내 접근 시

시·도 가축방역담당자 및 가금농가 축주에게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방역 조치 강화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등 방역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 역학조사 실무 매뉴얼 첫 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는 2015. 8. 6. 중앙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구제역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역학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으며, 역학조사관이 사전 역학조사 방법부터 현장 역학조사 그리고 역학조사내용 분석과정까지 단계별 상세적인 조사 요령과 준비물, 시료채취 방법, 농장 출입 시 방역사항 등 실질적인 역학조사 기법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역학조사관이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

루엔자에 대한 배경지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이들 질병에 관한 역학 이론, 주요 축종별 사양관리 및 유통구조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역학조사 실무 매뉴얼은 정부 3.0 가치 실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작과정에서부터 시·도 가축방역담당자, 외부전문가 및 생산자단체들과 여러 차례 검토회의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방역현장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역학조사의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시·도 가축방역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매뉴얼 이용 순회 교육과 수의역학역량강화 워크숍에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교육 실시하여 매뉴얼 이해와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매뉴얼을 역학조사와 관련되는 축산농가, 축산업계 관계자 등이 향후 있을 수 있는 역학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하반기 점검 대상 학교(4,368개교) ▲상반기「식품위생법」위반 이력 학교 및 식재료공급업체 ▲학교로부터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채소류 등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를 병행하여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와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개학 전 학교장, 영양교사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학교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신학기 시작 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급식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교육부와 함께 개학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

농촌진흥청

무더위 가축 관리 핵심 기술 책자 발간

농촌진흥청(이양호 청장)은 고온으로 인한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죽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 농가에서 활용하기 쉬운 「고온기 가축 관리 핵심 기술」 책자를 펴냈다.

가축은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사료섭취량은 줄고 심장박동과 호흡량이 증가하면서 땀 분비량도 늘게 된다. 혈떡거림과 호흡곤란, 전해질 불균형으로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죽는 피해가 발생한다. 더욱이 한반도는 지난 100여 년간 평균 기온이 1.5℃ 오르며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른 기온 상승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013년에는 폭염으로 닭 131만 5,000마리, 오리 16만 3,000마리, 돼지 1,350마리, 메추리 6만 마리 등 총 154만 마리가 죽었다.

이번 기술서는 지구 온난화 동향과 고온과 가축의 생리, 축종별 고온기 사양 관리, 초지 관리,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관리, 고온과 정전에 대비한 전기 관리 등 무더위에 축산 농가에서 대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한우와 젃소 등 주요 가축 외에도 사슴, 흑염소, 말의 사양관리 방법도 함께 실었다.

발간한 책자는 관련 부처, 축산 관련 단체, 대학, 축산 농가 등에 1,000부를 배포했으며, 원문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연구 활동→간행물에서 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최동윤 축산환경과

장은 “이 책자는 그동안 각 축종별 연구 부서에서 수행한 고온기 가축 사양과 축사 시설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해 묶은 것으로, 축산 농가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가단위 가축개량기관 워크숍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8월 12일과 13일 충남 아산 늘푸름수련원에서 국가단위 가축개량기관 공동연수(워크숍)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인공수정사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마사회 총 9개 개량 기관이 참석했다.

아울러, 가축 개량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10년, 20년 후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토의를 열었다.

첫째날 진행한 주제 발표 시간에는 △국가단위 가축 개량 사업의 정책 방향(농림축산식품부 조재성 사무관) △가축 개량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국립축산과학원 최태정 박사)를 발표했다.

또, 한우, 젃소, 돼지, 가금 각 축종별 가축 개량 방향 설정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토론과 발표에 이어, △차세대 한우 육종 농가 사업(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노승희 박사) △젃소 후대검정 강화와 씨수소 선발(농협 젃소개량사업소 민홍립 박사) △돼지개량 네트워크 사업 현황과 전망(한

국종축개량협회 김성수 부장) △가금 개량 연구 동향(국립축산과학원 김종대 박사)에 대해 발표 했다.

국가단위 가축개량사업은 가축육종학, 통계학뿐만 아니라 유전체 등 다양한 학문과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홍성구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개량 총괄기관으로 이번 공동연수를 주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개량기관간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위해 해마다 행사를 열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정부 3.0시대... '축산물 안심먹거리 연계통합 DB 구축' 나서

국민들의 먹거리인 소, 돼지, 닭 등 축산물과 관련된 위생·안전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상시 공유 체계인 통합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인증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한 2015년도 국가 데이터베이스(DB) 사업에 선정되어, 「LOD 기반의 축산물 HACCP인증 안전먹거리 연계통합 DB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8월 4일 밝혔다.

국가 데이터베이스(DB)사업이란 1999년부터 국가적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여 공공·민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 사업이다.

인증원은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HACCP 인증 및 안전관리통합인증 정보와 업체 마스터 정보를 비롯해 위생검사, HACCP교육, 기술상담, 보고서 DB 코드화 등을 연말까지 데이터화한다.

이처럼 축산물 안심먹거리 연계통합 DB를 통해 축산물 HACCP 인증업체, 인증정보 등 축산물 안전정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인프라와 콘텐츠가 구축되면 대국민을 대상으로 상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번 DB구축사업을 통해 여러 기관별로 나눠져 관리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축산물 안전먹거리 정보를 웹기반 데이터 공유인 LOD(Linked Open Data, 개방형연결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연계통합 DB로 구축함으로써 축산물 정보에 관심 있는 기관·기업·국민 등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접근, 이용 가능한 양방향 소통과 활용이 가능해 진다.

인증원은 농장에서부터 식탁(Farm to Table)까지 축산물 유통의 전 단계에 걸쳐 중요관리점(CCP) 등의 HACCP 인증정보와 위생안전정보를 소비자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국내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소비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만 인증원장은 “축산물 안심먹거리관련 정보를 정부 3.0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로 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며 “LOD형태의 서비스인 FRESH(Food Report on Safety of HACCP)의 구현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불량식품 척결' 실현과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강성주 국장은 “개방형 연결데이터인 LOD DB 구축을 확대하여 국가DB사업

이 개방·공유·협력·소통의 정부 3.0 데이터 융복합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인증 정보를 한번에!
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 오픈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축산물 품질·인증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를 8월 3일(월) 개시했다.

‘축산물거래증명 일원화 서비스’란 축산물 이력정보, 등급정보, 혈통정보, HACCP정보, G마크인증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축산물 품질 및 인증 정보 등을 공유하고 통합·연계해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거래증명 일원화 홈페이지(www.ekape.or.kr/one)를 통해 통합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물통합인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축육개량협회 등 축산물의 품질 및 인증, 식품안전정보 관련 기관과 정부3.0 정부 정책에 따라 협업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축산물 정보조회 시 축산물 이력정보, 등급정보, HACCP인증정보, G마크정보, 품질공정업체 정보, 혈통정보 등을 한 번의 조회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소비자는 축산물 관련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기관의 개별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

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축산관계자들은 하나의 통합정보 확인을 통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 행정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정부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위해 동물복지, 친환경인증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거래증명일원화 서비스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부·aT, 필리핀식품박람회
(WOFEX 2015) 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는 인구의 53%가 25세 미만으로 젊은 국가인 필리핀으로의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필리핀 파사이WTC에서 개최한 「필리핀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필리핀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로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 식품바이어가 방문하여 필리핀은 물론 인근 동남아 지역 농식품 홍보 및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는 13개국 336개 업체가 참가하면서 5만 5천여 명이 방문하였다.

이번 박람회에 일화 등 19개 업체와 함께 한국관으로 참가하면서 참여업체와 바이어 간의 일대일 사전 매칭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박람회 현장에서 실제 계약도 성사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14) 137건 / 25백만불 상담 → (15) 163건 / 30백만불(* 현장계약 1,789천불)

또한, 한국 식문화 홍보관 운영을 통해 바이어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홍보를 펼쳤으며, 박람회 참가 상품을 적극 활용한 메뉴 시연 및 제공으로 실제 한국농식품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음식 시연 메뉴 : 불고기, 잡채, 김밥, 떡볶이, 순대

필리핀은 도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06년 이후 식품소비 성장률이 3년마다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해야 할 시장 중에 하나이며, 젊은 층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장 선점이 중요한 곳이다. 이번 식품박람회 참가가 앞으로의 한국 농식품 수출 증가세 분위기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최근에는 필리핀 소비자들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건강기능성 식품인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드링크류, 곡물과 채소를 함유한 과자 등이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유충식 aT 식품수출이사는 “필리핀은 신규 유망 바이어 발굴 및 기존 거래선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한류열풍과 연계한 수출 증가세를 지켜가야 할 동남아 최대시장”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장개척 활동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2015년 축산물 가격조사원 교육 실시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부장 조영덕)는 전국 축산물 가격조사원 74명을 대상으로 8월 25일, 26일, 28일에 전주, 대구, 안성에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가격조사원 교육은 조사원의 자질향상과 보다 정확한 가격조사를 위해 축산물 산지(도매)가격 조사 기준과 요령,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향후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도 수렴한다.

한편, 농협은 축산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livestock.nonghyup.com>)와 농협영농정보 홈페이지(<https://farminfo.nonghyup.com>)를 통해 전국 74개 지역에서 조사한 축산물 19종(한우, 젓소, 닭, 계란) 산지가격 및 2종(닭고기, 계란)의 도매가격 정보를 매일 제공해 오고 있다.

이처럼 농협에서 조사·수집된 자료는 정보 수요자(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관계기관 등)에게 신속히 제공되어 시장출하 및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한 수급 조절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 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축산업 지원 및 보상기준(가축방역 보상금 등)을 마련하는데 직접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가격조사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